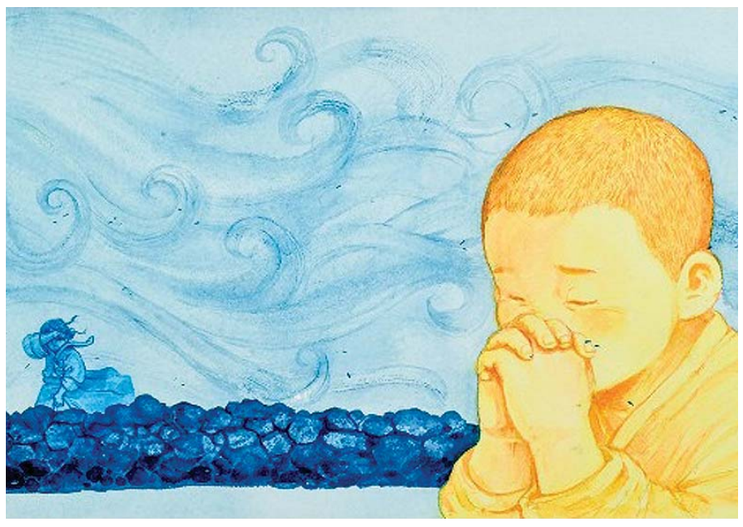
한 컷에 담은 세상… 만화로 울고 웃은 20여 년

제주만화작가회 창립 21주년
이달 17~30일 특별전 개최
'만화 속 제주신화' 주제 작품
국내 만화가들 축하 그림도


신자경의 '도대불 설화'.

한 컷 안에 풍자와 해학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만화. 시대변화에 따라 종이만이 아니라 웹툰으로 확장되며 여전한 만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에도 만화 세계를 꾸준히 알려온 단체가 있다.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은 제주만화작가회다. 제주만화작가회가 이를 기념해 특별전을 열고 제주만화의 현재와 미래를 나누는 자리를 갖는다.

제주만화작가회는 시사만화 '황우럭'의 고(故) 양병윤 화백을 중심으로 2000년 1월 '제주만화사랑회'로 출범했고 2002년 지금의 제주만화작가회로 명칭을 바꿨다. 그동안 매해 회원전을 개최했고 국내외 만화 교류전, 각종 문화 행사와 축제 때 만화 그리기 체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캐리커처 봉사 등을 진행해왔다. 현재 전업 만화가와 웹툰 작가는 물론 미술교사, 만화 지도 강사, 스토리 작가, 웹디자이너, 캐리커처 작가,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특별전은 '만화 속 제주신화'를 주제로 펼쳐진다. '신들의 고향', '설문대소녀', '본풀이(굿)', '설문대할망', '바람신 영등', '21C 천지왕본풀이', '강림차사', '삼성혈의 신화', '영등할망 바당별곡' 등 제주 정체성을 드러낸 작품들이 나온다. 코로나19 시국 등을 반영한 자유 주제 만화들도 볼 수 있다. 참여 작가는 김태곤, 강영수, 박원철, 오승익, 고용완, 김용인, 이창훈, 백금아, 고민수, 김정숙, 김순영, 오창식, 신자경, 강승철, 김현정, 강연경, 김성근, 김은진, 조영득이다. '황우럭' 1만회(2012년 11월 30일) 연재 기록을 세운 양병윤 화백의 소장 작품과 함께 국내 대표 만화가들인 신문수, 윤승운, 이정문, 김동화, 이두호, 이희재, 김광성, 이현세, 원수연 화백 등의 축하 그림도 선보인다.

백금아 제주만화작가회장은 이 전시에 부친 글에서 "20여 명의 작가들이 전시, 교류, 교육, 봉사를 하면서 20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지속발전하는 제주만화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 추석 연휴(9월 20~22일) 기간엔 휴관한다.

진선희기자

이 땅에 처음 온 아이처럼 발견한 나날들

문학 창작집 잇따라 출간
김정자·한문용 신작 시집
고운진·노수미는 동화집
양재봉은 세 번째 수필집

"이 땅에 처음 온 아이처럼 오늘도 낯설다"는 제주 김정자 시인의 신작 시집부터 가상 세계를 무대로 앞날을 담아낸 노수미 동화집까지 이 계절에도 제주에서 생산된 문학 창작집이 잇따르고 있다.

시력 20년이 넘는 김정자 시인은 여섯 번째 시집 '더 작아진 내일'을 냈다. '제주해녀' 등 60여 편이 수록된 시집으로 "일상의 삶에 균열을 내고 섬세하게 들여다보며 '생활의 구체에 깊이 뿌리내린' 낯섦을 예민하게 감각하고 형상화"(윤은경)한 시편들을 만날 수 있다. 다층. 1만원.

함덕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문용 시인은 두 번째 시집 '순수를 탐하다'를 묶었다. '생의 편린', '서우봉 노래', '춘몽', '장맛비', '몸부림쳤던 4월' 등으로 나눠 80편을 담았다. 특히 제주4·3으로 가족들을 잇따라 잃은 시인은 '4·3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등에 질곡의 세월을 풀어냈다. 제주콤. 1만2000원.

고운진 작가는 동화집 '천천히 자라는 나무야'를 출간했다. 표제작을 비롯 '가랑잎이 전하는 말', '은하수를 따라간 쇠똥구리', '산새들의 시 낭송', '포롱포롱 숲속 마을 결혼식' 등 10편을 실었다. 또래에 비해 느리지만 자연을 닮은 순수한 아이인 봄이가 등장하는 '천천히 자라는 나무야' 등 작가는 이번 동화집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전하려 했다. 한항선 그림. 한그루. 1만4000원.

노수미 동화집 '어린이법 9조 2항'은 네 편의 SF 동화와 두 편의 생활 동화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표제작은 지구에서 로로행성으로 끌려간 주인공 '나'가 그곳의 아이들이 어린이법을 없애지 말라고 시위하는 장면을 보며 겪는 이야기다. '내 동생 지석이'에서는 놀이 친구 겸 안전지킴이 로봇인 지석이를 진정한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가족 모습을 그렸다. 한항선 그림. 한그루. 1만3000원.

양재봉 수필가는 세 번째 작품집 '인연의 끈'을 내놓았다. '특별한 인연', '생존 법칙', '꼴찌와 32이라는 숫자', '보고 싶은 얼굴', '참 좋은 사람' 등 모두 60편이 담겼다. 정은출판. 1만3000원.

진선희기자

정상기 사진 '붉은겨우살이' 서울 인사동 갤러리 초대전

'한라산 붉은겨우살이'가 이번에는 서울 인사동으로 향했다.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초대로 이달 15일부터 시작된 정상기 사진전이다.

제주살이 30년이 다 되어가는 정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붉은겨우살이를 사진에 담아왔다. 어느 겨울날 한라산 영실 등산로를 따라 윗세오름으로 이동하던 중에 붉은겨우살이를 우연히 촬영했고 이를 계기로 그것의 생태와 매력에 빠졌다.

정 사진가는 한겨울 한라산 1100고지 이상의 참나무 꼭대기 높은 가지 끝에 자라는 붉은겨우살이를 '애인'이라고 부른다. 하이얀 눈과 대조를 이루는 붉디붉은 열매에 반한 그는 겨울만 되면 산에 오르길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붉은겨우살이 사진은 아름다운 외양에만 머물지 않는다. 다른 나무에 기생한 채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겨우살이의 서사를 통해 작가는 그곳에도 인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과 죽음이 있음을 드러낸다.

전시는 이달 28일까지 계속된다. 갤러리 4층 전관을 통틀어 대작을 위주로 붉은겨우살이 사진을 전시 중이고 5층엔 제주 사계절 풍경을 담은 작품을 내걸었다. 앞서 정 작가는 6~8월 제주신화월드에서 전시를 가졌고 지난 10일부터는 경기도 파주 콩세유미술관 초대전에 참여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인간 존엄을 물으며 새를 새기다

조각가 양용방 '새' 작품전
요철 변화 새 깃털 질감 등
민화 모티브로 갖가지 형상

양용방의 '새'.

제주 중견 작가인 양용방 조각가는 이번 전시에 '조각(鳥刻)'이란 이름을 붙였다. 조각(彫刻)의 동음이의어로 새롭게 만든 말이다. 그 제목에 전시의 빛깔이 단박에 드러난다.

그의 '조각'에 담긴 새 작업은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 민중들의 미적 감각을 반영한 민화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갖가지 동물이나 식물 형상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발산해온 민화의 그것처럼 해학적인 새의 모습을 입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잊혀가는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 했다.

지난 4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자리 잡은 갤러리 ICC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의 개인전에 나온 작품은 약 20점에 이른다. 철, 알루미늄, 제주석, 시멘트 등 갖은 재료로 작업한 '새' 연작을 만날 수 있다.

양 작가는 논슬립 철판에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요철의 변화 속에서 새 깃털의 질감을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알루미늄 판재를 절단한 뒤 두드리고 구부리거나 수도배관에 사용하는 엘보 등을 연결해 용접, 연마하며 작품을 완성시켰다. 새의 형상 등을 표현하기 위해 판화의 에칭기법을 끌어오는 등 시행착오도 거쳤다. 일부 작품은 만물의 생성소멸 원리를 의미하는 민화 속 오방색을 입혀 화려함을 더했다.

그는 "팬데믹 상황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 형상의 새 작품을 통해 인간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시는 이달 23일까지. 문의 735-1024.

진선희기자

성민화 드로잉전 '사물들' 사물이 품은 내면의 소리

성민화의 '고스트(ghost)-블랙'.(2016)

사물에도 생명이 있을까? 사물도 시간의 흐름을 흔적으로 보여줄 수 있나? 사물과 그 사물을 소유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성민화 작가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업들로 제주시 칠성로 비아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사물들'이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엔 서울과 독일 베를린을 오가며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성 작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작업한 창작물 중 일상 속 사물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이 나왔다. 유리병, 잉크통, 물감통, 이어폰 등 집안 어느 한 공간에 있을 친숙한 사물을 골라 섬세하고 부드러운 선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드로잉한 작품들이다. 비아아트는 이들 작품을 통해 "일상의 공간, 일상의 사물에 대해 고요하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시로 이달 26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달 25일 오후 7시 30분에는 조르쥬 페렉의 저서 '사물들' 낭독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723-260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